



1-5-2016

선교지 기독교 교육의 실제 의미: “선교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육”으로 / Practical Meaning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ission Fields: From "Mission Through Education" Toward "Education that Enables Mission"

Jay Shim

Dordt College, jay.shim@dordt.edu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

 Part of the [Christianity Commons](#), and the [Education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Shim, Jay, "선교지 기독교 교육의 실제 의미: “선교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육”으로 / Practical Meaning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ission Fields: From "Mission Through Education" Toward "Education that Enables Mission"" (2016).

Faculty Work: Comprehensive List. Paper 467.

http://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467

This Conference Presentation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Digital Collections @ Dordt.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Faculty Work: Comprehensive List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llections @ Dord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ingrid.mulder@dordt.edu.

선교지 기독교 교육의 실제 의미: “선교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육”으로 / Practical Meaning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ission Fields: From “Mission Through Education” Toward “Education that Enables Mission”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for a paradigm transition from “education for mission” model to “education that enables mission” model that is based on an integrative Christian spirituality and worldview. The former model loosely combines two different disciplines without deep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It uses education as a means to accomplish mission and may lead to conflicts between the two disciplines and thus sacrifice the unique nature and role of education. The latter model is rooted on a biblical interpretation of the comprehensive redemptive history of God which is reflected in the holistic Christian thought. On such a Christian basis, education and mission are not found to be two separate disciplines, exclusive with each other, but two different disciplines that are essentially and organically related, maintaining their own particularities, in such a way that one leads to the other. Such model of Christian education may cultivate both Christian intellectual perspective of education and knowledge of the world structured from the perspective, on the one hand, and Christian affection and attitude toward the gospel and mission, on the other.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uses John Calvin, Abraham Kuyper, and James Smith.

This article was delivered at the first PAUA Forum (Pan Asian African Universities Association) which was held on January 5th, 2016 in Seoul, Korea. The general Christian ethos of the universit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Korean churches in the last two decades is evangelical in theology and dualistic in spirituality with high emphasis on personal piety and dedication. The Korean Christian ethos and commitment made possible an astonishing trend of establishing Christian universities in the mission field. That was almost unimaginable two decades ago. The Korean mission by means of education is facing challenges at the moment. First, a carefully defined identity of Christian education should be determined in the planting stage. Without the well-defined identity and the content of education that is governed by it, the institution will soon be lost in the busyness of survival. Secondly, the mission fields are being industrialized and secularized at a fast speed. Once secularized, the currently-working merits of Christian education will be lost among the young people in the mission fields.

Keywords

Christian education, mission,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mission, identity of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Disciplines

Christianity | Education

Comments

Presented at the first PAUA Forum (Pan Asian African Universities Association), held on January 5-6, 2016.

“선교를 위한 교육”은 두 개의 서로 다른 disciplines 의 연결로써 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을 사용하는 모델인 바, 그 두 disciplines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교를 위하여 대학의 원래 목적을 타협하거나 희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은 교육과 선교를 기독교 신앙의 체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보아서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인도하는, 그래서 기독교 교육 자체가 선교일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한 일관된 체계의 기독교 교육은 “관점적인 지성”과 함께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를 함께 형성하므로 교육 자체가 선교이며 선교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기독교 교육의 이슈는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기초에 관한 것이다. 교육의 기초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대학 지도자들의 배경과 전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과 전제에 대한 내적인 성찰과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1) 대학 지도자들의 영성과 그들 대학의 기독교 정체성; (2) 이러한 영성과 정체성이 주장하는 대학 설립과 교육의 이유와 목적; (3)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궁극적으로 실제 교육의 커리큘럼과 내용을 규정한다.

위에 언급한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델을 선교지의 상황에 실제로 유익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 기독교 교육의 전략 (정체성과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의 개발과 실행, (2) 현장/학생 중심적인 교재 (현지의 문화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에 중점)의 개발, 그리고 (3) 연합사역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Forum 과 Institute 를 실행하여 교수 개발)의 실행이라는 가까운 장래의 사역을 영두에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선교지 대학의 독특한 역할과 PAUA 의 사역

대학 교육을 통한 선교는 선교지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고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교의 모델이다. 많은 선교지 국가들이 저개발되었거나 개발도상국이어서 그곳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곤고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 거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도 그들에게 가능한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의 열쇠는 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선교하는 선교지의 기독교 대학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매우 효과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교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쩌면 모든 선교지의 조건이 요구하는 매우 매력적인 형태, 많은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형태일 수 있다.

선교는 복음전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선교에는 그 상황에 적합한 삶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선교는 전인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선교하시던 당시의 유대 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곤고하였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구약에서 왕으로 예시된 메시아의 예언들을 모두 실천하시므로 예수께서는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께서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시며,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선교에 그러한 삶의 요소들이 포함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전파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전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예수께서 전인적인 해방을 그의 백성들에게 실천하시는 것이다. 삶의 정황을 따라 예수께서 행하신 폭넓은 선교 사역을 현재

선교지에서 기독교 대학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선교지에서 요구되는 교육은 선교의 효과적인 방편이면서 선교 자체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께서 실천하시는 전인적인 해방에 교육은 현재 선교지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시 예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율법학자들과 변론하셨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좀더 informal 하게 하신 것을 현재 선교지에서 좀더 formal 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삶의 정황들이 선교의 중요한 요소라는 위의 교훈을 현재 선교지에 적용하여 보자. 선교지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선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의 교육으로부터 선교하도록 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육”은, 대부분의 선교지 기독교 대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을 의미한다. “선교를 위한 교육”은 두 개의 다른 disciplines 이 연결된 모델이다. 서로 다른 내용과 목표를 가진 두 개의 disciplines 중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선교지 대학에서 교육과 선교는 병행되므로 선교를 위한 교육을 병행모델이라 불러도 되겠다.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은 두 개의 disciplines (일반 교육과 복음선교)이 일관된 기독교 영성과 세계관 위에 정립되어 연결된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 모델이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처럼 두 개의 다른 disciplines 이 목적과 수단으로써 병렬식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체계 안에 두 개의 필수적인 삶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정립된 기독교 교육이다.

선교지에서의 교육이 두 문화의 만남이고, 때로는 교육자의 일방적인 문화전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과 교회의 문화가 선교지에 전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교육과 교회의 모습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함께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실제 과정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괴리들, 교육과 대학에 대한 인식들 등이 그대로 선교지 현장에 접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들은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반영된다. 그것들이 선교지 환경에 선하게 건강하게 작용할 수도, 또는 건강하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 때로 가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나 많은 부작용을 남기기도 하며, 오랜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나 보다 올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전후 70 년만에 세계 10 위 권의 무역과 경제를 일으킨 요인 중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을 위한 열심과 헌신에 있어서 한국의 부모의 노력은 거의 기적적인 것이다. 놀라운 부흥과 발전은 그만한 댓가를 치루면서 이루어졌다. 물질만능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 교육의 비정상적인 방법과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부흥과 발전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복음에 대한 열심과 헌신, 그리고 부지런함이라는 한국인의 특성이 살아 움직였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심과 헌신은 신학과 실제 삶 사이의 유리, 내세적인 좁은 의미의 구원관, 기복신앙 등으로 규정되고 굳어져서 현재의 한국 교회의 신앙, 영성, 그리고 세계관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화하는 위험은 따를 수 있으나, 현재의 한국 교회와 교계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은 복음에 대한 부적합한 이해와 설교,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일변도의 목회와 세상의 삶에서의 복음적인 삶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경과 신학을 이렇게 이해하고, 살고, 목회하고, 성장한 결과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이다. 숫적인 성장과 큰 건축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러나 현재는 성장이 중지됨,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 전도의 어려움, 세상 사람들로 부터의 질타, 많은 목회자들의 윤리의식 부족, 끊이지 않는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을 세상의 풍조가 험하게 변화하였음에만 돌릴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저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그에 따른 건전한 영성과 세계관 형성의 부재에서 찾는다.

김세윤 박사는 한국의 개신교 신앙이 하나님의 예정-신앙으로 인한 칭의-하나님의 견인으로 이어지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약화되거나 간과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간다”는 단편적인 이해로 결론지어졌다고 지적한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단계가 아닌 동의어로 쓰이는 의미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성경의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신교 신앙은 구원을 영혼구원, 또는 천국가는 조건으로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기독교 종교를 “개인적인 소극적인 경건주의”로 치부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간과하였고, 교회적으로는 동원목회, 성장목회로 이어졌다고 한다.¹

선교사 출신으로 선교학을 강의한 성남용 목사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의 특징을 서구 선교사들의 방식을 답습한데서 찾고 있다. 신학적인 학문도 그렇거니와 선교에 대한 그의 지적이 옳을지 모른다. 근대-현대-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 서구 사상의 흐름을 체험으로 산 경험이 없고 공부로 알아와서 그에 따른 신학을 한국의 상황에서 별 비평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선교지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거기에 한국 교회의 열정적인 지원과 기도, 그리고 선교사들의 열심과 헌신이 더해져서 오늘의 선교 성장과 함께 독특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는 한국인 선교 현장의 부정적인 특징으로 온정주의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선교사 지원, 현지 문화에 부적응, 물량주의적 선교 사역, 선교 전략의 부재, 그리고 연합 사역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다.²

이러한 한국 사회와 교회가 교육을 선교지에 그대로 활용하여 선교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지의 실제에서 기독교 대학을 통한 선교를 올바르게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저자는 (1)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과 내용과 방향이라는 선교 전략의 개발, (2) 현장중심적인 교육 내용 개발, 그리고 (3) 그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할 연합 사업의 실행이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대학을 통한 선교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 그 자체이다.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기독교 기관이다. 올바른 복음의 이해가 인도하는 기독교 교육 자체가 선교이며 선교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장중심적인 교육 개발은 학생들이 배우는 기독교 학문 (기독교 신앙의 시각으로부터 세상에 대하여 배우는 학문)이 그들의 주류 종교/문화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배워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영두에 두는 교육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별히 기독교 교육 사역은 연합 사역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의 운영을 제외하고 대학의 교육에 관련된 이슈들만 보아도 기독교 대학과 교육의 정체성,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교재 개발, 교수 훈련과 파송, 등 각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¹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5; 김세윤,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서울: 두란노, 2015.

² 조준영 기자, “기획/한국교회 미래를 말한다 (2): 선교 패러다임 반전의 계기 필요하다, 기독교신문, joshua@kidok.com. 대담에서 성남용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량주의는 우리의 온정주의적 태도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착한 마음이 만든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량주의 선교가 지속되는 원인이 몇가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단일문화권에 사는 우리는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서툰니다. 또 연합사역을 하지 않고 각개전투식 사역을 하므로 과시적 선교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지나친 열심으로 문어발식 물량주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전략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전략없는 선교가 가능한 것은 연합을 매개할 수 있는 강력한 선교본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송교회에서 후원만 잘 해주면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파송교회들도 선교본부가 전략을 세우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선교사들은 선교본부보다 후원자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내용과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포럼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PAUA 라는 연합사역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의 기초와 방향

서구사회에서 그동안 기독교 교육이 세계관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지성적이고 학문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어온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독교 교육이 전인적인 인간 개발을 잇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교육의 근저를 이루는 신학과 신앙에 그러한 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추구하는 통합적인 교육은 신앙과 학문 사이의 통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새로워진 인간의 사고와 삶이라는 새로운 양식 안에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학문을 결합하여 커리큘럼을 형성하여 가르치는 학교 교육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새로워진 전인간의 사고와 삶이라는 틀 안에서 학교 교육을 조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지식의 축적과 전달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 열정과 갈망, 추구하는 비전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지식이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 지적인 관점만의 형성이 아니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의 열정과 태도에 대한 형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선교지 교육에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정서적인 확신과 헌신과 같은 마음의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서구 사회에서 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가지는 신앙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 학문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그가 속한 학교의 다양한 사역들과 오프 캠퍼스 커뮤니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성장한다. 그러나 일관된 기독교 커뮤니티가 조성되지 아니한 선교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학생은 그러한 열정과 비전을 서로 나누고 성장할 커뮤니티의 유익을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가 속한 주류 문화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며 심하게는 핍박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의 영적인 영점과 지적인 동의와 함께 신앙이 제공하는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이 글은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이 학문적인 교육과 함께 정서적인 확신과 열정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을 역설한다: (1)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은 학문 자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개발한다. 복음이 제시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정서적인 확신과 열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문적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인도한다. (2) 그러한 정서적인 확신과 열정은 그것의 근원이 되는 복음에 대한 애착과 선교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에 지성적인 내용과 방향과 함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서 business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성격과 마음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저자들은 사업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기회라는 “관점적인” 또는 “지적인” 방향에서 그 학문의 내용을 재규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변화는 다만 “지적인” 방향에서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는가를 결정하는 “마음”과 “열정”에 대한 변화로도 나타난다.³ 사람의 실제 행동을 규정하고 유발하는데 생각의 기능과 함께 마음의 태도와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염두에 둘 때에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관점적인” 지성과 함께 “정서적인” 태도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최근에 많이 인용되는 기독교 교육 철학에 관한 James K. A. Smith의 중요한 논의가 있다. 적어도 서구에서 전통적인 교육이 철학적인 인류 이해에 근거를

³ Kenman Wong, Bruce Baker, and Randal Franz, “Reimagining Business Education as Character Formation,” in *Christian Scholar’s Review*, XLV:1, 2015, pp. 5-24; 이 논문에 대한 답변과 논의로 pp. 25-57 를 보라.

두었으며 그 결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 교육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목표를 기독교적인 개념의 소통과 전달에 두고 독특한 사람의 형성이라는 전인적인 목표에 두지 아니하였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많이 논의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논의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지성적인 면에서 이루어졌다. 지성적인 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주로 기독교 신념이 가지는 신앙고백이나 사교의 시스템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사교의 목표는 개념, 원리, 주장 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사교”를 형성하는 데로 모아졌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주로 머리 속에 “올바른 개념과 신앙고백”을 형성하여 “올바른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Smith는 사람의 사교와 개념과 함께, 또는 그 근저에 “마음”이 그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역설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됨은 일차적으로 “올바른 개념과 신앙고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있다고 역설한다.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또는 그 근저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함께, 또는 그 근저에 먼저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세계관을 따지기 전에 경배가 우선된다는 말이다.⁴ 그는 결론적으로 기독교 대학의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기독교 학교와 대학의 의무는 아무 공립학교에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하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의무는 또한 세상이 지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단순히 “기독교적인 시각”을 부여하여 망가진 세상에서 성공하여 풍요로운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만도 아니다. 기독교 대학의 사명은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방법으로 제자의 형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대학은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형성하는 기관 (*formative institution*) 이다.⁵

Smith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니 교육 자체를 논함에 있어서, 교육의 지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을 간과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한다. 학문과 교육의 실용성이 배타적으로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전인적인 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의 지적이며 실용적인 면을 형성하고 실제로 작동하게 함에 있어서 “마음의 태도의 형성” (*heart formation*)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삶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향하며,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사는가를 규정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우선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또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으로 주장된 지성 위주의 교육의 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을 보다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기독교 교육이 일반 과목에 대한 기독교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대상은 세상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어떠한 종류든지, 어떠한 시각에서 실천하든지 신앙과 학문의 대상인 세상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계 설정을 세계관으로 불러도 영성으로 불러도 무방하나, 요점은 기독교 교육이 신앙의 시각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을 조망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느냐 이다. 이 논문은 신앙과 세상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또는 배척하는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고, 일관된 체계 안에 포함되도록 형성될 때에

⁴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09, pp. 31-34.

⁵ James Smith, *Desiring the Kingdom*, p. 34. 저자 번역.

세상에 대한 학문과 교육이 신앙의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신앙과 세상이 서로 다른 체계에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신앙이 구원을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속이라고 이해한다면, 또는 학문적으로 신앙과 학문을 배타적인 갈등 관계로 본다면 그렇게 형성되는 기독교 교육은 “선교를 위한 교육” 모델일 것이다. 거기서 교육은 선교를 위한 방편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 이 모델에서 선교와 교육 사이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러한 갈등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언젠가는 그 둘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나 후자처럼 양자가 일관된 체계에 속하여 있다면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교육 자체가 선교일 수 있으며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⁶

먼저 후자의 기독교 교육의 모델의 근거로 칼빈의 신학이 보이는 신앙과 세상의 연결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위한 그의 “지성적인” 관점과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를 살펴본다. 그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 어떻게 학생들 안에 세상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마음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세상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문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인 열정을 형성할 수 있으면, 그러한 기독교 학문 자체가 선교일 수 있으며 선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구속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열정과 비전 (love, affection, and desire) 이라는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칼빈은 어거스틴 이후 사고와 정신의 기능을 강조하는 서구 신학의 지적인 전통 안에 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로부터 구속에 이르는 그의 서술에서 정신과 마음 (mind and heart) 의 관점이라는 전인적인 태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마음의 태도”에 대한 칼빈의 서술을 살펴보자.

“아무도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종교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전체 작품 안에 창조주 자신을 매일 드러내고 계신다. 그 결과 사람들이 눈을 뜰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창조주를 보게 된다... 창조주께서는 그의 모든 창조물마다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영광의 표시를 남기셨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된다.”⁷

칼빈이 강조하는 일반계시의 요점은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제작한 작가를 추론하듯이 창조세계를 볼 때에 창조주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는 인식적이고 논리적인 지식만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한 인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기능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으로 부르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종교의 씨앗”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간의 본성의 기능이다. 창조주의 존재는 다만 지적인 인식의 대상만이 아니라, 창조주 인식에 대한

⁶신앙과 과학방법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시도되는 네 가지 태도의 요약은 다음에서 보라. Ian G. Barbour, *Religion in the Age of Science*, San Francisco: HarperOne, 2013. 그 네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갈등 모델”은 신앙과 과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2) “독립 모델”은 신앙과 과학이 두 개의 전혀 다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3) “대화 모델”은 일반적으로 “독립 모델”에 동의하지만, 신앙과 과학 사이에 접촉이 가능하여서 하나가 다른 분야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또한 갈등도 생긴다고 전제한다. 4) “통합 모델”은 신앙과 과학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⁷ John Calvin, *Institutes*, I.v.1., 저자 번역, 강조 더함.

마음의 반응을 포함하여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반응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하늘과 땅을 “찬란한 집”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가장 풍성한 비품”들로 채우셨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경건하게 즐기는데 두려워하지 말자.”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경건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칼빈은 권고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창조와 섭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두 행동이 아니다. 창조하신 이유와 원리를 보존하시고 전개하시는 다스리심이 섭리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전체를 망가뜨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신다. “섭리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가하게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진 주인처럼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⁹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책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숙명론 사이의 관계라는 어려운 주제들을 야기하였다. 칼빈은 그러한 관계들을 서술하면서 인간 지식과 지혜의 제한성을 언급한 후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로 창조와 섭리에 관한 신학을 결론짓는다.¹⁰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이유와 원리를 보존하고 만사를 다스리심으로 마지막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에서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선함을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 그러한 칼빈의 해석의 근저에는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전제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섭리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두번째 전제는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다. 세번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골로새서 1:15-20). 이러한 배경에서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선함을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섭리의 결과, 또는 호의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어떤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하던지,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선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칼빈도 죄된 세상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뜻과 행하는 행위가 완전히,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거스틴 이후 신학을 따라서 그는 모든 자연적인 선물과 초자연적인 선물이 망가지고 부패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대로 하나님의 은혜, 섭리, 또는 호의를 따라서, 또는 성령의 역사로 약간의 “빛”이 망가진 채로 인간 안에 남아있다고 함으로 그것으로 죄된 세상에 존재하는 선함을 해석한다.

“세속의 저자들에 관련하여서, 그들의 저술 안에 빛나고 있는 감탄할만한 진리의 빛은 비록 인간이 그 전부에서 죄에 빠지고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mind)이 하나님의 찬란한 선물들로 입혀지고 장식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출처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 자체를 거부하지도 또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던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들을 경시하는 것은 곧 성령 자신을 멸시하고 치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

⁸ John Calvin, *Institutes*, I.xiv.20.

⁹ John Calvin, *Institutes*, I.xvi.4.

¹⁰ John Calvin, *Institutes*, I.xviii.4.

¹¹ John Calvin, *Institutes*, II.ii.15.

그리고 칼빈은 고대 법학자들, 철학자들, 논리와 웅변에 능했던 사람들, 의학자와 수학자들이 발견하여 활용했던 지식들을 “커다란 경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 모든 진리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보고 신자와 비신자를 포함하여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칼빈의 확신은 그로 하여금 일관된 집필의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 그는 옳은 것이면 그의 적으로부터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채우시고, 주장하시며, 그 성질들을 발휘하시는데, 그러한 역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각각의 종류대로 지으신 것들에 부여하신 독특한 성격을 따라 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물리, 논리, 수학, 그리고 기타의 분야에서 믿지않는 자들의 노력과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그러한 도움들을 사용하도록 하자.”¹²

우리는 여기서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몇가지 중요한 요점을 볼 수 있다. 우선 칼빈이 일반 사회, 일반 세상에 나타나는 선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창조주께서 창조세계에 심어놓으신 원리를 성령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그 성격과 원리들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각각 만물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과 성격이 죄로 망가진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 창조주의 원래 뜻대로 전개되는 것을 성령의 현재 역사로 보는 것이다.¹³ 두번째로, 일반 사회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칼빈은 “인류의 공통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임을 역설한다.¹⁴ 일반 세상에서 나타나는 선함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 (일반은총)로 볼 것인지, 세상 안에 창조의 원리를 보존하시고 전개하시는 섭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만 하나님의 호의로 볼 것인지를 이르는 전문 신학의 몫으로 남겨두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선함과 진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각이다. 그것은 칼빈과 개혁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일반 세상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는다는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복음 선교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현재 세상과 인간 삶의 영적인 위치가 구속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어서 온 만물을 그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과정에 있다면, 구속된 백성이 구속사의 시각을 따라서 보고, 배우고,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조하시기 원하시는 그 세상인 것이다. 구속사의 시각으로부터 보는 세상은 다만 죄에 물든 세상이어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한 관점 (세상을 보는 지적인 형성)으로부터 세상에 대하여 공부하는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구속된 삶을 사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창조소명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고 (마태복음 5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시므로 화목된 백성이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세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원인과 목적이 다르게 드러난다. 기독교 교육의 이러한 관점적인 요소는 다만 신앙적인 시각과 비신앙적인 시각을 구분하거나 자연현상과 기적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기독교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¹² John Calvin, *Institutes*, II.ii.16.

¹³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해는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여 좀 더 전개되는데, 창조의 원리로부터 구속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의 성령의 역사 이해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Grand Rapids: Baker, 2005, chapters 3 and 4.

¹⁴ John Calvin, *Institutes*, II.ii.16.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라는 근본 전제로부터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뿐 아니라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이 그 주권자의 창조의 뜻이며 섭리의 결과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독특한 목적을 따라서 해를 한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규칙적으로 공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뜻과 역사의 산물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섭리)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창조와 섭리는 분리된 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후자가 전자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이 현재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의 과정으로 또는 호의로) 죄의 영향과 작용이 억제되고 선한 뜻이 작용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세상 이해는 초대교회 이후 학문을 담당하는 기독교 학계의 주된 견해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세상 이해는 기독교 교육에 매우 중요한 기초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야 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제공한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인간 삶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연구해서 인간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 하겠다. 다시 언급하자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놓으신 자신의 질서의 원리를 (자연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원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제반 학문의 작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타락-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구속사 이해는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창조로부터 구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과 학문 사이에 일관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관된 관계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지적인 관점의 형성과 함께 세상과 지식,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대하는 love, affection, and desire 라는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는 선교지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과 교육 사이에 일관된 관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교할 마음의 자세를 일깨워줄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인 지식이 신앙을 전파하는 선교일 수 있으며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제시하는 지성적인 관점과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

위에 해설한 구속사의 이해 안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칼빈주의 강연의 4 장, “칼빈주의와 학문”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점을 해설한다: “첫째로, 칼빈주의는 학문에 대한 열정 (“love for science”)을 장려한다. 두번째, 칼빈주의는 학문의 영역을 회복한다. 세번째, 칼빈주의는 학문을 이전의 부자연스러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네번째, 칼빈주의가 어떻게 학문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본다.”¹⁵ 그의 저서 칼빈주의 강연이 기독교적인 원리를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삶의 체계” (life-system)로 정의하고 있다. 때로 그의 기독교적인 사고와 삶에 대한 해설이 “원리”라는 지적인 개념 위주로 너무 지성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배우고, 경험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해설이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실제 상황에서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자가 볼 때에 창조와 구속에 이르는 성령의 현재 역사를 해설하는 내용과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한다는 그의 설명은 구속사 안에서 이해가 되고 충분히 현대인들의 마음을 주장할만한 전인적인 해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말로 한다면, 그의 기독교 사고의 해설은 “지성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학문의 영역과 내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세상과 학문을 대하는 기독교적인 “정서적인” 태도를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 “지성적인” 교육의 내용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¹⁵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83, p. 110. 저자 번역.

카이퍼가 여기서 언급하는 science는 과학 일반, 특별히 자연과학이나 경험주의 학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루는 모든 지식을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과학”이라 번역하지 않고 “학문”이라 하였다. 칼빈주의 신앙이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장려한다고 주장하면서 학문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카이퍼 당시의 유럽 학계가 칸트의 이원론적 학문 분리를 따라서, 경험적인 근거가 있는 지식을 학문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그런 근거가 없는 내용을 종교로 치부할 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적인 지식을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는 불가지론 (agnosticism)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퍼는 신앙의 관점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학문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였다.¹⁶ 그러나 사실 엄정한 의미의 과학자나 불가지론자도 형이상학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의 지식들을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불가지론의 대상으로 밀어부칠 수는 없었다. 그들의 탐구의 대상인 과학적인 지식들도 피할 수 없이 우주의 의미나 인간 삶의 윤리성과 목적 등과 같은 비과학적인 이슈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영역을 기독교의 시각에서 재설정하는 카이퍼의 해설, 즉 “지성적인 관점”의 내용 (그의 두번째 요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학문이 어떠한 “정서적인 태도”를 발생시키는 지 (그의 첫번째 요점)를 살펴보자.

이원론적인 카톨릭 신학의 세상 이해와 그에 따른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한 설명은 영적인 위치와 삶을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위치와 삶에 비교하여 우위에 두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탐구보다 영원한 영혼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치중하였다. 이러한 세상 이해와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종교개혁 시기로부터 칼빈주의에 의하여 변화되었다. 여기서 카이퍼는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죄용서와 영혼 구원이라는 좁은 의미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넓은 의미의 구원을 통합적으로 조화시킨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구원 (personal and individual aspect of salvation)이라면 후자의 구원은 포괄적인 우주적인 구원 (cosmic aspect of salvation)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구원론적인” 종교인 것에 동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질문이 소중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함께 그 구원의 의미가 소중한 기 때문이다. 구원의 의미,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 기독교회는 늘 두 필수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에 있어서 “죄성과 성도됨” 사이의, “시간 안의 일시적인 것과 영원” 사이의, 그리고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 사이의 긴장이었다. 이 둘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중생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해가 자연의 삶과 은혜의 삶 사이의 긴장을 초래하였다. 하늘의 삶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은 하나님에 창조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간과하고 방치하게 하였다. 영원한 것에 대한 전적인 열정은 현재 시간 안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영혼에 대한 너무나 독점적인 관심이 육체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부조화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교회 내의 많은 그룹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비주의적으로 경배하도록 인도하였다. 그리스도가 독점적인 구세주로 인정되고 구원의 우주적인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구원 이해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요한이 구세주를 소개할 때에 그는 먼저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¹⁶ Peter s.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8, pp. 170-71.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쓰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구속의 대상이 죄인 개인들의 구원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구속으로 연장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원래 머리셨던 그리스도 아래 유기적으로 연합된다. 그리스도 자신도 땅의 새로워짐과 함께 우주의 새로워짐을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9:28).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라고 하였다. 바움의 요한은 모든 구속을 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들었다. 계시록이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이 보이고 있는 미래에 이루어질 마지막 결과는 구속받은 영혼들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에 이루어질 온 우주의 회복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된, 우주적인 의미의 복음이 칼빈에 의하여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 신학에 반대하여] 발견되었다.¹⁷

카이퍼는 개인경건중심적이고 이원론적인 영성과 세계관이 팽배한 중세의 카톨릭 교회로부터 칼빈이 성경의 포괄적인 구원 이해를 재정립하였다고 하는데, 카이퍼 당시의 개혁신학에도 경건중심적이고 신조중심적인 성도들이 많았다. 그러한 배경에서 그는 신앙이 다만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라 설파하였다. 그러한 구원 이해와 영성과 세계관을 그는 칼빈에게서 찾았다. 그의 요점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경건이란 영혼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시작된 구원이 온 우주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연장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저서 맨 앞에 기독교 신앙은 “삶의 체계” (life-system)이라 하였다.

이러한 구속사의 이해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이해에 변화를 주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칼빈주의는 세상에 대한 멸시와,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도외시,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평가절하를 말끔히 털어버리게 되었다.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창조세상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하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 세상 안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정립되었다.¹⁸

하나님의 본성이 세상에 드러나고 창조세상의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으로 알 수 있다. 성경의 구속사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누가 와서 구원하는냐는 질문에 성경은 만드신 바로 그 분이 오셔서 고치신다고 대답한다 (골로새서 1:15-20). 그러한 구원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요한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를 조금 가까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저자인 요한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정반대되는 영성과 세계관을 언급하는 듯한 요한 1서 2:15-17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는 거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한 “세상”의 의미는 요한복음 3:16과 같은 요한 1서 4:9, 14의 “세상,” 즉 창조세계로서의 세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¹⁷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p. 118-19. 저자 번역.

¹⁸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p. 119-20. 저자 번역.

성경의 가르침 위에 신앙과 세상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일관된 통합적인 영성과 세계관으로 형성한 후에 카이퍼는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속된 삶의 모습 중에서 학문적인 요소를 다룬다. 거기서 그는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은총은 아직 죄가 뿌리깊은 세상에서도 죄의 영향력을 억제하여 사람다운 선한 모습과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호의, 또는 창조의 원리를 현재 보존하시고 전개하시는 섭리의 작용이다. 일반은총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지는 않으나, 온 세상 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다스리심의 일부이다. 구원이 죄인의 죄 용서와 온 우주의 회복하심이고,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하심으로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창조소명의 재위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은 구속받은 삶을 영적인 영역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한다. 그러한 이해는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칼빈주의자는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삶을 신학과 명상에 제한하고 다른 분야들을 낮게 여겨서 불신자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 전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알아서 이 땅과 하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모든 정열을 들어서 알도록 부름받은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고, 자연 안에 있는, 자연의 놀라운 현상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활동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사회와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일반은총을 발견한다.¹⁹

이렇게 이해하는 학문과 교육의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하는 교육 또는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의 “지성적인 관점”의 해설이다.

이제 이러한 지성적인 교육의 관점이 추구하는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카이퍼의 첫번째 요점은 “칼빈주의는 학문에 대한 열정 (“love for science”)을 장려한다”이다. 기독교 신앙이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장려한다는 카이퍼의 이유는 학문의 근거에 대한 신학적인 확신이다. 그는 다양한 만물이 하나의 체계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창조 세계의 “일체성”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관되고 통일된 “원리”가 기독교적인 학문을 하도록 하는 열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하나님의 작정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존재와 삶의 양식이 다만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법칙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어서, 하나의 엄정한 뜻이 존재하여서 자연과 역사 진행의 작정을 실행한다는 데 대한 확신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고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일체성 (one all-comprehensive unity)이라는 개념과 하나뿐인 원리 (one principle)를 우리 마음에 요구한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는가? 이러한 사고는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일반적이고, 숨겨져 있었으나, 특별한 방편에 의하여 알려진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과연 그렇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안정성과 규칙성 (stability and regularity)이 존재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다. 그래서 당신은 우주가 우연한 던져져서 이루어진 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엄정하게 일관된 체계에 따라서 지어진 엄청난 작품임을 마음 안에 깨닫게 된다.²⁰

¹⁹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 125. 저자 번역.

²⁰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 114. 저자 번역.

학문에 대한 카이퍼의 이해는 우주나 사회 현상에 대한 불규칙성을 논하기 이전의 내용, 즉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일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유일한 “원리”의 사상을 담고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세상 전개의 유일한 주관자로 인정하므로 우연이 미래를 여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배척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일체성과 유일한 원리가 세상에 대하여 배우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장려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만물의 일체성, 안정성과 질서에 대한 신념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커다란 목소리로 일깨운다. 이러한 일체성, 이러한 안정성, 이러한 질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면 학문은 단순한 추측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우주 만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이 있을 때에만 학문은 특정한 현상에 대한 경험의 탐구로부터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인 현상으로부터 현상을 주관하는 법칙으로, 그리고 법칙으로부터 모든 것 위에 주관하는 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²¹

카이퍼는 기독교 신앙, 즉 기독교적인 세상 이해를 학문적인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모든 지식은 선행적인 전제 (a priori presupposition), 또는 세계관 위에서 이루어진다. 어떠한 지식도 그 궁극적인 기초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세상의 존재와 세상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의 일관성과 규칙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지식으로 세울 수 없게 된다. 모든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어떠한 전제, 신념, 또는 세계관 위에서 작용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 위에서 오직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만 합리적인 지식이 가능하고, 기독교적인 지식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과거의 철학적인 편견에 대응하였다.²² 기독교적인 학문과 교육은, 특별히 카이퍼와 개혁신앙의 전통에서, 신앙을 이러한 전제로 전개하였다. 여기서 신앙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포함하는 바, 삶의 체계로 보는 카이퍼의 신앙 이해를 말한다. 그가 주장하는 통합적인 기독교 학문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내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는 만물의 유기적 일체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뜻인 하나의 원리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이 만물의 유기적 일체성과 하나님의 유일한 원리가 만물에 대한 지식의 안정성과 규칙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학문적인 기초가 기독교 학문 작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관점적인 지성)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는 적극적인 태도 (정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카이퍼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독교 학문을 추구하게 하는 열정, 그리고 그러한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는 지금까지 해설한 학문적인 기초와 함께 그가 두번째 요점에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구속사적인 경건한 의무의 개념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결론과 장래 사역

지금까지 이 글은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이 선교지의 대학 교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일반적인 “선교를 위한 교육” 모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disciplines 의 연결로써 교육을 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델인 바, “선교”를 위하여 “대학”의 원래 목적을 타협하거나 희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통합적인 시각의 기독교 교육 모델인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은 교육과 선교를 기독교 신앙의 체계 안에 근본적으로 조화롭게 연결하여 하나가 다른

²¹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p. 115-16. 저자 번역.

²² 이러한 주제를 개혁주의 인식론이라 부르는데, 다음에서 상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James F. Sennett, ed. *The Analytic Theist: An Alvin Plantinga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pp. 97-210.

하나를 인도한다. 복음과 교육은 통합적인 기독교 영성과 세계관 안에서 근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그렇게 형성되는 기독교 교육이 선교할 수 있고 선교하는 교육이 된다. 그러한 일관된 체계의 기독교 교육은 관점적인 지성과 함께 정서적인 마음의 태도를 함께 형성하므로 교육 자체가 선교이며 선교하도록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다. 그것이 복음의 광범위한 내용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러한 결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칼빈과 카이퍼 등의 개혁주의 신앙을 사용하였는데, 사실 기독교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의 주장은 그들 교단이나 신학만의 이데올로기나 전유물이 아니다. 이 글이 밝히려고 노력한 것은 그들이 찾은 성경의 구속사, 즉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가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한다.

논문의 서두에 쓴 것처럼 기독교 대학은 선교지의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일 수 있다. 할 일은 각 대학이 PAUA 와의 협력으로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1)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과 내용과 방향이라는 선교 전략의 개발, (2) 현장/학생 중심적인 교육 내용 개발, 그리고 (3) 그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할 연합 사업의 실행. 선교지와 대학에 따라서 여건이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독특한 모습과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서로 나누고 논의하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함께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PAUA 가 진행하는 Forum 이나 Institute 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각 대학들에게 길안내와 자료 제공자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